

# 유명인의 질병 홍보

글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2002년** 흑인 여성 최초로 오스카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미국의 영화 배우 할리 베리(Halle Berry), 41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탄력 있는 몸매와 자태를 뽐내고 있는 그녀는 당뇨병 환자이다. 선천적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부족한 제1형 당뇨병을 앓고 있다. 그녀는 당뇨병 때문에 TV쇼 촬영 도중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그녀가 당뇨병 판정을 받은 것은 20대 초반. 그 이후로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은 물론, 철저한 식이요법과 운동을 하고 있다. 그녀는 오스카상 시상식 때 “당뇨는 삶을 헤쳐 나갈 힘과 의지력을 심어준 커나란 선봉”이라고 말해 당뇨 환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줬다. 그녀는 2004년부터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의 후원으로 이뤄지는 ‘당뇨 알기(Diabetes Aware)’ 캠페인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 유명인 환자가 자신의 질병 광고나 캠페인에 나서는 것은 흔한 일이다. 프로 농구 선수였던 매직 존슨은 제약회사 GSK의 광고 모델로 등장하여 자신이 감염자이기도 한 에이즈에 대한 홍보 활동을 했다. 그가 일반 대중에게 에이즈 경각심을 알린 공로는 감염자로서 그가 받았던 고통을 뛰어 넘는다. 전립선암 수술로 발기부전이 된 전(前) 상원의원 밥 뚨은 화이자 의 비야그라 TV광고 모델이 되기도 했으며, 뇌졸중으로 쓰러진 영화 배우 커키 더글라스는 브리스톨-마이어스사(社)의 심장병 캠페인 주연으로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유명인 환자의 활동이 시작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는 압조기검진 광고 캠페인에는 기암을 앓았던 탤런트 양택조씨, 유방암을 앓았던 탤런트 오미희씨와 연극 배우 이주실씨가 등장해 “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심근생체증을 앓았던 야구 해설가 하일성씨는 바이엘의 아스피린 광고 모델로 등장하여 “정말 몰랐던니까. 어휴, 그 때만 생각하면?”이라고 말하면서 아스피린의 심장병 예방 효과를 강조한다.

유명인사들의 질병 경각심 캠페인은 공익적 목적을 띠 때가 많다. 대통령 영부인이 대대로 소아암 재단의 홍보 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유명인들이 수익을 위해 광고 모델로 나서건 공익 캠페인 활동을 하건, 그들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 공개적인 활동을 펼치면 해당 질병에 대한 일반적인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고 질병 예방 효과도 배가 된다고 한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유명인 환자들이 더 많이 나설 수밖에. 그것도 ‘유명세(稅)’이다.